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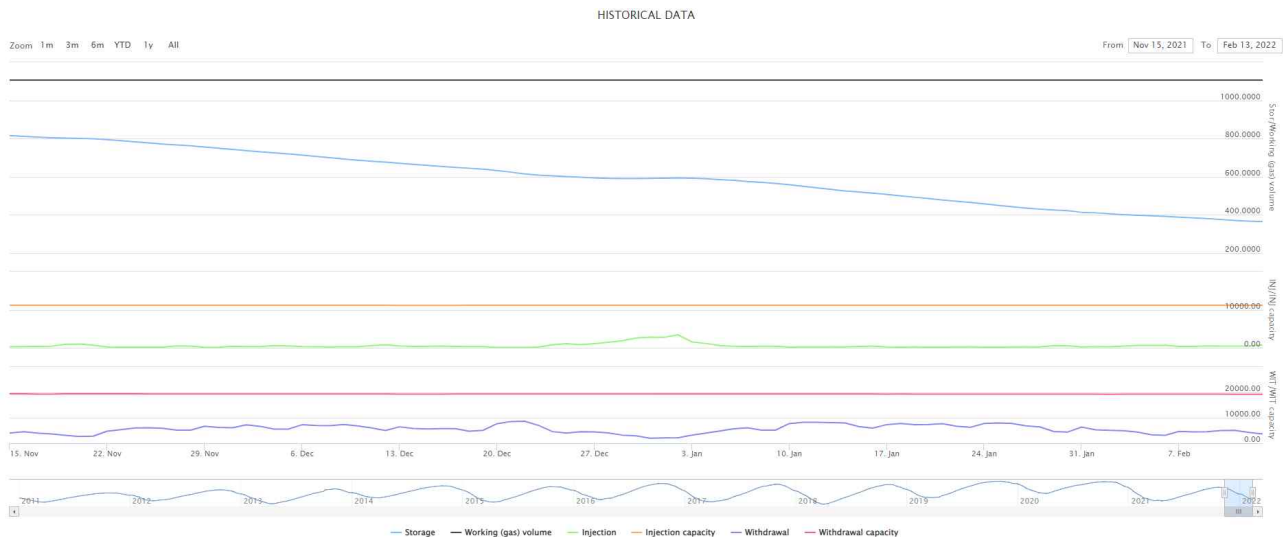
본 매체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글쓴이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매체에 게시되는 자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심심한 Insight: 22년 2월 셋째 주 현재 천연가스 가격의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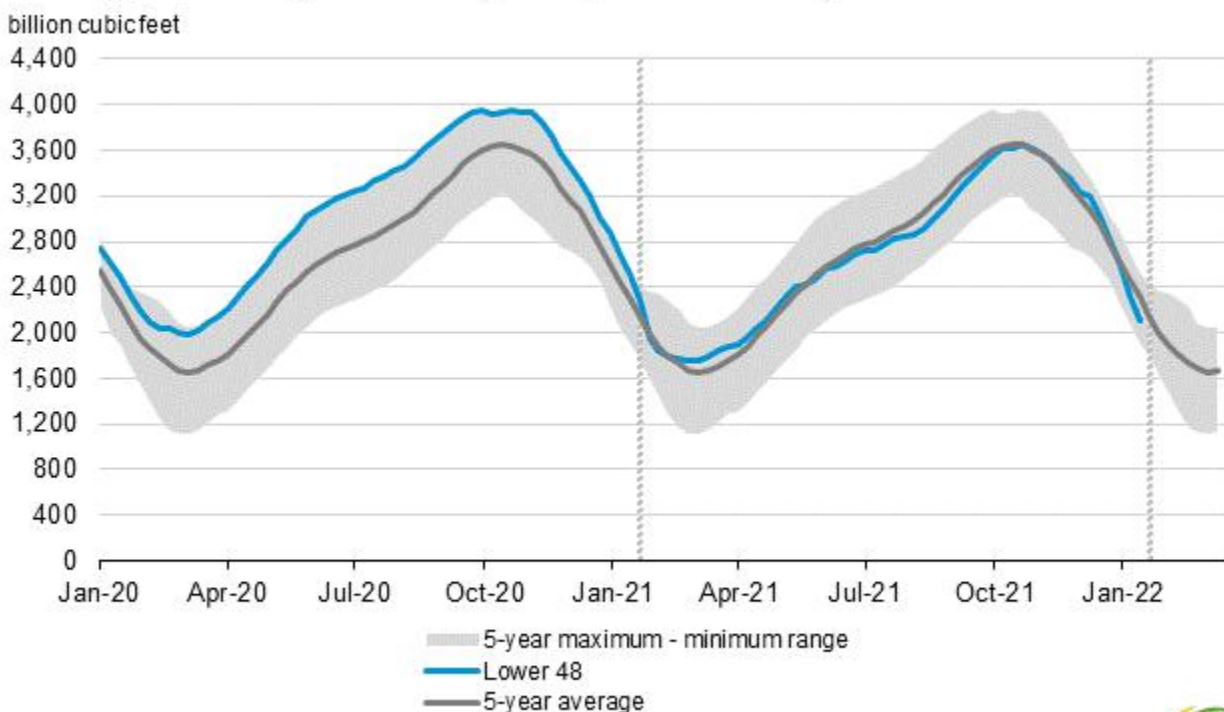
[Fact and Chart]

- 유럽 천연가스 재고량



- 미 에너지관리청(EIA) 천연가스 재고량

Working gas in underground storage compared with the 5-year maximum and minimum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러시아 가스프롬 최근 동향

러시아 주간경제동향 (2.10.(금))

작성자: 주.러시아 대사관 / 작성일: 2022-02-10

2. 주요 에너지-광물 동향

가. 가스프롬과 유 2/2~3/4분기 야말~유럽 가스관 수송 물량 경매 불참

- GSA Platform 발표에 따르면 가스프롬는 유 2/2~3/4분기 야말~유럽 가스관 수송 물량 경매에 불참함.
 - 가스프롬은 1월에 동 가스관 하루 1,930만m의 가스 수송을 예약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2월에도 수송 물량을 예약하지 않음.
- 한편, 가스프롬은 유럽 지하가스 저장소의 비축 수준은 1.29 기준 평균 39%이며, 하절기 비축한 가스 물량의 80.3%(38.4bcm)를 사용했다고 밝힘.
 - ※ 가스프롬은 독일 4곳, 오스트리아 1곳, 네덜란드 1곳, 체코 1곳 등 유럽 내 8곳에서 지하가스 저장소를 운영 중
-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드스트림2 AG는 독일 연방네트웍의 독일 국내법 요건 충족 요구에 따라 독일 내 'Gas For Europe GmbH' 계열사를 설립했다고 보도(1.30).
 - 한편, 독일 당국은 노드스트림2 AG로부터 노드스트림2 동쪽 심사 재개를 위한 서류 제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쪽 심사가 올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으로 보이며, 동쪽 불허 시 법원 제소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동쪽 심사 과정에 EU 집행위가 참여하고 있어 EU집행위 의견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호프만 독일 연방네트웍청장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紙 인터뷰 발인)

마. 체르노고르스크 광산회사, 백금·팔라듐 광산 개발을 위한 운영 신탁 확보

- 체르노고르스크 광산회사*는 VEB.RF(러 국영개발은행) 및 VTB은행과 북극 타이므로 지의 체르노고르스크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신탁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2.2)
 - * 러시아 플라티나 그룹이 2011년 매입
 - 러시아 플라티나 그룹은 동 사업 추진으로 노르니켈 *의 다음의 제2대 러시아 백금·팔라듐 채굴업체(점유율 15%) 및 세계 Top5 생산업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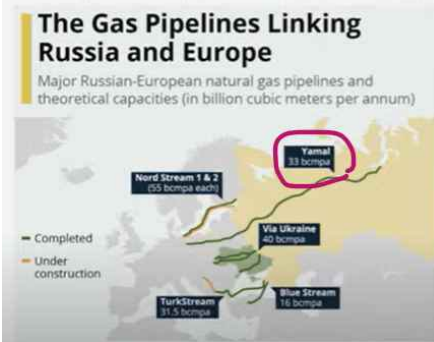
러시아 주요 언론 경제 관련 기사 (2.15(화))

작성자: 주.러시아 대사관 / 작성일: 2022-02-15

- 유럽 석유가스 가격, 러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 (2.14, Kommersant)
 - 2.14일 기준 가스 1천m³당 1천불, 브렌트유 배럴당 95불 기록
- 대형 서방펀드, 바이든 대통령의 러 침공일(2.16) 발원 영향으로 러 및 유럽증시 투불화 자산 매도세 (2.14, Kommersant)
 - * 러 국내지수 4~5% ↓, 유럽지수 4% ↓
 - 라브로프 외교장관, 푸틴 면담(2.14) 시 협상 지속 필요성 언급 이후 투자심리가 소폭 안정되었으나, 당분간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자하로바 러 외교부 대변인, 언론 인터뷰 계기 미국이 러시아를 유럽 에너지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 (2.15, Tass)
- 독일(2.15)부로 6.30일까지 연례 국물 수출쿼터(올해 총 8백만톤) 시행 (2.15, Tass)
 - * 총 1,100만톤 중 밀/메슬린 8백만톤 : 호밀, 보리, 옥수수 3백만톤
- 로사툼-Air Liquide(프랑스 기업), 사할린 수소 생산공장 타당성 조사 완료, 하루 100톤 생산 계획 (2.14, Tass)
 - * 2024년 연말 중 공장 가동 및 2025년 정기 공급 개시 예정
- 벨로루트 부총리, 150kW급 전기차 급속충전소 대상 보조금 지급한 긍정 평가 (2.15, Kommersant)
 - 한편,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충전소 총 545대(저속 365대, 급속 180대) 가동 중
- Sollers 러 자동차기업-투스기드로, 올해 6월 블라디보스톡 내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개시 예정 (2.15, T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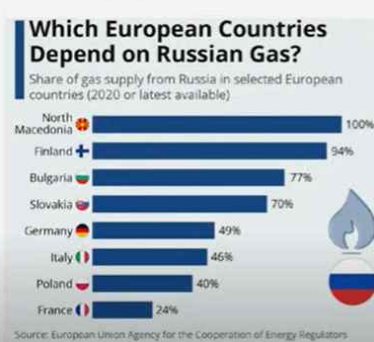
/끝/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아킬레스건



-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 25% 러시아가 차지
- 이 중 85%는 파이프라인 통해 유럽에 공급
- 석유도 러시아가 3위 생산국

독일 이탈리아 취약 영국 스페인 다변화



- 카타르 가스 공급 대 폭 늘릴 수 있다고 (장기계약 선호)
- 미국이 카타르 지지
- 대안: 노르웨이, 미국, 알제리

- 천연가스 선물 일봉

단 천연가스 선물, 월, (CFD) - □ □ □ 시:4.172 고:4.425 저:4.159 종:4.272



[Opinion]

- 천연가스 가격의 양(+)의 함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재고량 감소, 예고되지 않은 한파, 그린 택소노미
- 천연가스 가격의 음(-)의 함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생산량 증가, 따뜻한 기온, 대체 에너지의 가격 안정
- 현재 수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장에 불안 요소를 가중
- 관련 종목에 대한 헷지로 접근은 가능하나 대체 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을 함께 관찰해야 할 필요
- 천연가스 가격 함수의 변수들 중 단기 변수를 제외하면 천연가스 가격의 하방 지지에 대한 근거는 이해 가능하나, 현재보다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 인플레이 우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롱포지션은 위험할 수 있음